

# “민주화를 위해 싸운 5·18 영령들 잊지 않겠습니다”



## “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

한발 한발 밟을 때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.  
 내가 대표로 꽃을 올릴 때 심장이 쿵쿵거렸다. 대표로 꽃을 드린다는게 꿈같고 떨렸다.  
 헌화가 끝나고 5·18묘역에서 무덤을 보던 중 나와 비슷한 또래들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 대단하고 만약 내가 나라가 위험할 때 나도 나라를 지키려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도 했다.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.



### ■ 현장 탐방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역사 수업

**양서준**  
5·18민주화운동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고 결초보은을 하겠다.

**이도현**  
5·18 묘나 이런 묘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, 이번에 가봐서 좋았다.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슬펐다.

**김민준**  
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궁금해졌다.

**김지아**  
많은 사람이 희생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.

**윤선아**  
5·18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중에 학생분들도 많이 있었는데, 학생인데도 광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맞서 싸우신 게 존경스러웠다.

**정상익**  
직접 5·18국립묘지를 다녀와보니 속상했어요.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

**백한결**  
5·18에 가서 슬펐다.

**김민결**  
5·18 묘역에 가기 전에 5·18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, 계엄군이 길가다 놓고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시위하던 사람들을 죽이는게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렸다. 또 계엄군한테 화가 나기도 했다.

**이지현**  
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슬펐다.

**이윤석**  
왜 5·18때 학교를 가지 않게 했나요?

**이한별**  
5·18 묘역에서 울컥했다.  
**김민결**  
5·18때 이렇게 많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났다.

**김찬후**  
5·18 묘역에서 잠깐 행진하고 꽃을 헌화할 때 차분하고 웅장한 노래가 흘러 나왔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퍼서 눈물이 쫄 났다. 그때 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민주화가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느낀다.



### ■ 이태석 신부님 묘소를 가다

## “신부님 묘소에서 슬프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어요”



**김지아**  
이태석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인상깊었다.

**이도현**  
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해주신 이태석 신부님 사랑합니다.

**양서준**  
이태석 신부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

**정상익**  
저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도와줄 거예요.

**이지현**  
마음이 아팠어요. 나도 이태석 신부님을 받고 싶다.

**백한결**  
이태석 신부님 만나서 좋았다.

**김민준**  
이태석 신부님 훌륭합니다.

**김정미**  
이태석 신부님 봉사하러 가신 것도 대단하고,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복을 베푸신게 정말로 대단합니다.

**김민결**  
이태석 신부님 묘소에 가지전 영화를 보

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 가서 아이들을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주시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다. 지금은 치료받은 몇몇 아이들이 의사가 되었다. 그래서 뭔가 나도 뿌듯했다.

**윤선아**  
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존경스러웠다.

**김찬후**  
5·18 묘역처럼 행진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꽃을 향아리같은 거에 꽃을 때기분이 좋았다.

그리고 이태석 신부님께 받고 싶은 점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할 일을 직접 나서서 병을 치료하고 신발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받고 싶습니다. 이태석 신부님 사랑합니다.

**김민결**  
이태석 신부님의 묘소에 가서 슬프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다.

**이한별**  
이태석 신부님 이제 편히 쉬세요.

**이윤석**  
이태석 신부님을 만나뵙지 못해 아쉬워요.